

Easter 2024
The Garden: Good Things Grow Here
March 31, 2024
Pastor Bo Stern-Brady

부활절 2024

정원: 좋은 것들이 여기서 자랍니다

2024년 3월 31일

보스턴-브래디 목사

Last week's review: My hour has not come. My hour has yet to come. My hour has yet to come.

(Everything is intentional) THEN, the whole city is worshiping him. The Pharisees are gnashing their teeth and plotting his death because it seems that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Some Greeks come to the disciples and ask to meet their guys. They go to Jesus with the good news - everything is up and to the right - and Jesus responds: 지난 주 리뷰: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의도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도시가 그를 숭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이를 마시고 그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가 그를 좇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되고 있는데 -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y to be glorified. John 12:23

아들이 많은 영광을 받는 시간이 이르렀다. 요한복음 12장 23절

Glorified (*doxasthē*) = to honor, magnify, make renewed or render excellent

Seems like good news. But wait...아들이 많은 영광을 받는 시간이 이르렀다. (*doxasthē* = 존경하다, 극찬하다, 새롭게 만들거나 우수하게 만들다) 요한복음 12장 23절

Very truly,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John 12:24

진실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알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Dies (*apothanē*) = significance of the separation that always comes with divine closure. Stresses the ending of what is "former" to bring what naturally follows.

And then, Jesus tells them: Same goes for you. Anyone who loves their life will lose it and anyone who lets go of their life will find it - and it will multiply into eternity.

This concept is not foreign to us, here in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where many have given up their lives so that the rest of us could hang onto ours. It's not foreign, but it is difficult. Even Jesus - king of the universe - struggles.

죽음 (*apothanē*) = 신성한 마감과 함께 항상 오는 분리의 중요성입니다. "이전의" 것을 끝내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놓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곱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외국적이지 않습니다.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이들의 고향인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낯선 것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도 투쟁합니다. **Verse 27:**

“Now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was for this very reason I came to this hour. Father, glorify your name!” John 12:27 이제 내 영혼이 번뇌하며 어찌 말하리요? '아버지여, 이 시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리요?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이르렀음은 이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There is sorrow (letting go is painful), there is anxiety (trusting can be scary)...it's not easy to let go of life...it's counterintuitive, but it is beautiful and it is worth it.

The science of seeds. The husk has to die for the seed to live. We don't just "let it go" into the ether - we plant it intentionally into good soil. Into the trustworthy earth that knows exactly how to receive and feed and multiply a little seed into a sturdy tree.

What is the result? The fruit is revealed. The shell of the seed is left behind. The fruit/flower bears more and more fruit. God is a gardener. He planted his Son in the garden of our world to save us, and he is always planting us in Him. He grows good things. What are the good things?

슬픔이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아프다), 불안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삶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이지만, 아름답고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씨앗의 과학. 씨앗이 살기 위해 외피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놓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좋은 토양에 심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땅에, 정확히 어떻게 작은 씨앗을 받고 먹이고 번식시킬지 아는 땅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과일이 나타납니다. 씨앗의 껍질은 남겨집니다. 과일/꽃은 점점 더 많은 과일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원예사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 세상의 정원에 심어 우리를 구원하고, 그는 항상 우리를 그분 안에 심습니다. 그는 좋은 것들을 자라게 합니다.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These words can all go on one slide - I'll zip through them fairly quickly)

Hope Tells us that our loving God has more for us, and the more is good. (Eternity, the now-and-not-yet) "희망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을 말이죠. (영원함, 지금과 아직)"

Healing

Our loving God meets us in the wounded spaces, past and present. He aligns all things with His good and perfect will.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상처 입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과거와 현재를 모두 정렬하여 그의 선하고 완벽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Freedom The powerful love of God liberates us and breaks the chains that fasten us to unworthy gods.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부적당한 신들에게 묶여 있는 사슬을 깨뜨립니다.

Flourishing

We are perfected (made complete and mature) in God's love. Nothing missing, broken, or bound — being and growing as we were meant to. (Delight and purpose)

We can count on the gardener to grow these things in us as we keep our roots planted firmly in him. As we let go into His careful hand, just betting everything on the belief that He knows better. He is a better gardener. He grows better things. 6 8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해지며 완성됩니다. 부족하거나 깨져있거나 묶여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존재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목적)

우리는 뿌리를 단단히 하나님 안에 심은 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할 정원사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의를 손에 맡겨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이 더 잘 아시기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더 나은 정원사이십니다. 그분은 더 나은 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Life is of so peculiar a character, it so completely eludes any desire to have it at our own disposal, that it is lost precisely when we desire to hold it fast, and it is won exactly when we give it up.

Rudolf Bultmann (Commentary on John)

인생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욕망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단단히 잡고자 할 때 정확히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정확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 루돌프 볼트만 (요한서 해설)

Back to our story...let's jump ahead. Jesus has faced his accusers. He's been declared innocent, yet sentenced to death. He is nailed to a cross in front of a mocking crowd. He promises a thief safe passage into new life. He entrusts his mother to his friend, John. And says, "It is finished." And dies.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뛰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졌습니다. 그는 도둑에게 새 삶으로의 안전한 통로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친구 요한에게 맡기고 "다 되었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Later, Joseph of Arimathea asked Pilate for the body of Jesus. Now Joseph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With Pilate's permission, he came and took the body away.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seventy-five pounds.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wrapped it, with the spices, in strips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At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tomb, in which no one had ever been laid. Because it was the Jewish day of Preparation and since the tomb was nearby, they laid Jesus there. John 19:38-42

이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위해 빌라도에게 나가서 말씀하니 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요 다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몰래 함이라. 빌라도가 허락하매 그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으니 그러면서 또한 나사렛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나아간 자라. 그가 향유 및 알로에 약 칠십오 포를 가지고 왔으니. 이에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례대로 휘장에 싸고 향유와 함께 석고로 둘러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새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에는 아직 사람이 잠자지 않았더라. 이는 유대인들의 예비날이었고 그 묘실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를 거기 둔 것이었더라. - 요한복음 **19:38-42**

Joseph buries his broken dream in a garden tomb. Surrounded by another absurdly extravagant offering of spices. They take the bruised, bloody body of Jesus and plant it in an entirely different kind of garden. Have you ever let go of a dream? A plan? Have you ever buried your hope that Jesus is the one you were looking for? That's these guys on this terrible, no good, very bad day. They are in their darkest moment, but they are just three days from more hope than they ever could have imagined. They are releasing a dream - but they will get that dream back AND the tomb AND the spices, too. 요셉은 그의 깨진 꿈을 동산 묘실에 묻었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향신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 입은 피와 고름으로 더러워진 몸을 가져와서 전혀 다른 종류의 동산에 심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예수님이 당신이 찾던 분이 아니라는 희망을 물어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지만, 단 세 날만 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놓아야 하는 중이지만 그 꿈과 함께 묘실과 향신료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Let's turn the page to Sunday: "일요일로 페이지를 넘겨 봅시다."

Now Mary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and saw two angels in whit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oot.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머리를 숙여 무덤 속으로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 부분에, 다른 하나는 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묻기를, "여자아, 네가 왜 우느냐?"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At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He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내 주를 가져갔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주를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니 예수가 거기 서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아, 네가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A couple of things happening here that are truly remarkable and tell us a lot about Mary and her faith.

여기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은 정말 놀라울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그녀의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She is at the tomb and looks inside - which is a scary thing in itself. She doesn't recognize the angels as angels - she says,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This is the first time Jesus is ever referred to as Lord in the gospel of John. And Mary is saying this while standing in front of his tomb. The is the resilience of her faith. Then she says to Jesus, not knowing He's Jesus: "Tell me where you've put him and I'll go get him." How is a little woman going to carry a fully grown dead man? This is the passion of her faith.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녀는 천사들을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 주를 가져갔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의 탄력성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를 가져다 드릴게요." 작은 여자가 완전히 자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운반하겠어요? 이것이 그녀의 믿음의 열정입니다.

Jesus said to her, "Mary."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그녀는 돌아보고 아라마어로 소리쳤다. "랍보니!" (이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고."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John 20:11-18

마리아 막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를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 요한복음 **20장 11절-18절**

Mary becomes the first person to share the news: The seed that was buried lives! The gardener and the garden are one! The hope that was lost has a heartbeat! In the remaining pages of the gospel of John, just two chapters, the word "Lord" will be used fourteen times. They saw what he did in his life and followed him. They saw miracles beyond imagining. They heard him teach. They saw how he loved. But He was not "lord" until the seed fell and died. It had to happen. It was the will of the Father but it was also what WE needed to see him as he really is.

마리아는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묻혀 있던 씨앗이 살아있습니다! 정원사와 정원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희망은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나머지 장에서는 단 두 장만 남았지만 "주"라는 단어가 열네 번 사용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르친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되려면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를 진정한 모습으로 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Seed paper explanation. (KEYS BACK UP) :**Vase of seeds vs. bouquet of flowers. Jar full of seeds vs. basket of apples. Seeds are not beautiful. They are small and plain and grey - their only beauty is in their potential. But the promise is released in the soil. The promise is released in the waiting. In the dying. In the hoping. In the hurting. In the resurrection. **Friday becomes Saturday becomes Sunday...and we see the seeds sown in sorrow break through the ground to reveal the good work of a good good Father.**

씨앗 종이의 개념은 종자들의 꽃병과 꽃다발 또는 씨앗 가득한 항아리와 사과 바구니와 같은 대비와 비교됩니다. 씨앗 자체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들은 작고 평범하며 종종 회색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잠재력에 있습니다. 흙에 심어지면 성장과 생명의 약속을 지니게 됩니다.

씨앗의 약속은 프로세스를 통해 실현됩니다: 기다림, 죽음, 희망, 상처,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 속에서. 금요일이 토요일로 변하고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우리는 슬픔 속에 숨겨진 씨앗들이 땅을 뚫고 나와서 사랑과 관심이 가득 찬 아버지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합니다. 씨앗 종이의 본질은 이러한 변형 과정에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생기고 번성한 생명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가장 겸손한 시작에서도 아름다움과 잠재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며, 희망과 새로움을 제공합니다.

(VIDEO PLAYS HERE....no intro)

Video.

Song.

Benediction.